

제3차 韓·오레곤 산업협력회의 개최

—美 오레곤주 비버튼市 그린우드 인 호텔에서—

제3차 韓·오레곤 산업협력회의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美 오레곤주 비버튼市 그린우드 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Together Success(공동번영)」이란 주제아래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본 회의와 함께 산업시찰로 이어졌으며, 회의기간중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렸다. 제1차 회의 및 제2차 회의는 '87년 11월과 '88년 10월 美 오레곤주 포틀랜드市에서 성황리에 열렸었다



제3차 韓·오레곤 산업협력회의가 7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美 오레곤주 비버튼市 그린우드 인 호텔에서 양국 업체대표 및 관계인사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Together Success(공동번영)」이란 주제로 한국방위산업진흥회(KDIA)와 미국 방위준비협회(ADPA) 오레곤지부 및 오레곤주 비버튼시 등 3개 기관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는 본

본 회의장에서 데니 스미스 議員 기초연설후 함께...
왼쪽부터 防振會 柳俊馨 상근부회장, Denny Smith 의원 그리고 Ken E. Beckerich 美 방위준비협회 오레곤 지부장



회의와 함께 산업시찰로 이어졌으며, 회의기간중 전시회가 병행하여 열렸다.

9일의 본 회의에서 Denny Smith 美 下院의원은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은 남은 마르크스주의의 마지막 전초기시중 하나로 남아있다고 밝히면서, 오늘의 어려운 상황을 더욱 유리한 기회의 창출시기로 생각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또 그는 기술산업에의 의존성 증대추세를 역설하면서, 민간분야로의 기술이전을 위해 연방연구소 콘소시엄(FLC)의 활용을 제의하였다. 데니 스미스 議員이 강조한 변화가 되어야 할 9가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美 조달규정의 간소화
- 기술적 조준 하향 및 관료주의적 장애 제거
- 초기기술의 결실 증대
- 민간업체 자금의 방산개발계획 투자요청 및 강요 중단
- 軍 운용시험의 명확성 확립
- 소규모 경쟁노력의 확대
- 생산경쟁체제 확립
- 軍 조달명세서의 분량 축소
- 전투시험 강화 및 국방부 운용시험실 설립에 주력

끝으로 Denny Smith 의원은 자유기업의 논리를 우리 무기체계의 개발에 적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국방예산의 축소가 필요한 변화를 야기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회를 전해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대한 질의에서 防振會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한·미간 협력에서 한국측은 공동생산을 생각하는데 반해 미국은 완제품 판매만을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요지의 질문과 함께, 『절충교역의 시행을 한국측 업체는 물론 미국측 업체들도 바라도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요지의 질의를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데니 스미스 의원은 양국 공동생산에 대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며, 미국도 상당량의 방산품을 한국으로부터 들여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읍셋에 관련해서는 한국이 아직 COCOM 회원국으로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데 따른 장애에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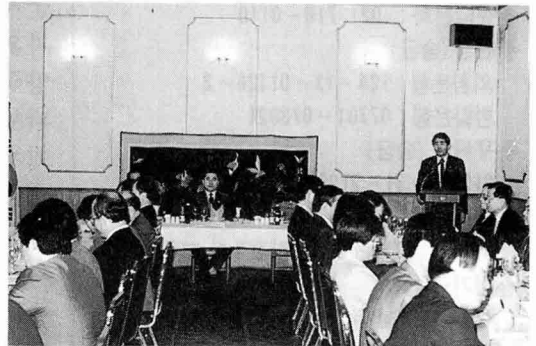
이어 10일 열린 만찬에서 방위산업진흥회의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한국경제동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상호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의 수입자유화 정책의 적극적인 활용과 한국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완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1월 한·미 방산회의에서의 Halley 주한 美합동군사지원단장의 연설과 美 국방과 학위위원회(DSB)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하며, 한·미 방산협력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였다.

이와함께 한·오레곤 산업협력회의의 성과가 미흡했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및 미국 양측의 상호협력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柳俊馨 상근부회장은 『협력의 장점을 서로가 인정하고, 협력할수 있는 부문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면, 이를 극복하는 일이 어렵지 않을 것이며, 상호발전을 도모할수 있음』을 역설하였다.

機動·通信·電子분야 방산간담회 개최



7월 3일 열린 방산간담회 전경

기동·통신·전자분야 防産간담회가 7월 3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관계관과 서울엔지니어링 吳世哲 사장을 비롯한 21개 업체 대표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池昌昊 국방부 방산국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산물자 원가계산기준 규정 개정과 방진회의 계약보증제도 도입 및 국과연의 기술용역업무 개선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해외 방산협력 위원회의 활용과 무기체계 획득관리 규정 개정 및 통신·전자분야 연구개발 형태 전환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이어 업체의 건의사항인 방산물자 지체상금 면제기준 완화와 방산가동을 향상 지원조치 및 계약 예정물량 사전생산의 제도화와 주요장비 유지부품의 적기 공급대책 수립에 대해 활발한 의견교환이 전개되었다.

상호 및 본사 이전

大韓造船公社(株)의 상호 및 본사의 소재지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상 호	(주) 대한조선공사
	본 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해운센타본관 9층)
변경후	상 호	(株) 韓進重工業
	본 사	부산직할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번지
	전 화	(051) 49-4161·5161